'88 사업

. 2-3月 김이수 재판 등, — 서울大 제안. 재판 방청·투쟁 (신입생 단대회·3·8 주~~[illegible]~~ 보고에 함).

2개월마다 정기검진. ⟹ 법안(공대위) 2개월마다 'AIDS 증' 항체 반응 검사 실시, 신체보도, 보고 요청을 보사부장관이 [illegible]에게 요구하도록.

• AIDS 감염 신고해 미국이 공개, 감염자 송환

(· " 책임자로 미국 철수.

한방협 철폐

AIDS 예방법 개정

[illegible])

정부는 AIDS 검진 의무화.

건약, 여고, [illegible], 건약교, 기독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세 민주치과의사회, 교여연, 여성협, 한여연. (AIDS 추방 위한 비상공대위)

AIDS 추방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보사부) 85-87년 일제 실시. (미국이).
유흥업소·외국인·성병감염자,
매 2년 1회 (성인기준)으로
의무적으로 AIDS 검사.
감염되면 즉시 송환하는 등 엄격
자체관리에 철저.

· 3개월마다 미국 실시는 감염되는 경우 한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실시x.

• 허슬러. '88 Olympic과 한국의 Sex관광' ~~[illegible]~~.

— 매춘 소설화 반대.

— 미국이 있는자 [illegible].

'89 사업.

'3.8을 맞이하는 우리 입장' 토론회, 89년 성문화 투쟁 방향.

'89년 ┌ 반미자주통일 — 축소
├ 여성 자주적 조직 결성 — 평등한 취업기회 요소 동일
└ 인신매매. 향락문화 유흥업소 근절 퇴치.

• 인신매매 — 노의 부정부패에 의한 여성 성상품화정책 + 반미종속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PT 계층 통제논리 강요

. 사회주의에서 존재 이유 없지만, 노가 경제적 이익만에 집중하여서 생각 못해. ..

→ (노의 부정부패 척결.
- 경제적 종속관계로 이익만 애쓴다.
경제적 낙후로 다시 여대생 성상품화 폭로.

'인신매매 방지 및 여성이 결국 향락 ~~노예 해방대회~~' / 토론회

* 투쟁사업 주체 취업 주체 보자. — 투쟁 사업 평가도 (89年 2月) 및 정치투쟁으로만 등.

'89 ㅅㅇㄷ 축전.

· 3月 이대 자주여성소위. – 축전특위 참가이유 논의, 전국에 배포. 축등
3ㅅ

· 4月 서이+ 축제소위 (5차례 모임). — 4/25 대중토론용 자료 냄. ⇒ 실제 자료내용 확보 연구단위가 아니라, 축전 전반에 대한 전체상담이 됨.

5/9. 3기 발족, 대동제. 축전위 발족.

'89. 전여대협.

· 경과 → 4月 8일 첫 모임. 축전투쟁 매개.

· 실무회의 진행 (축전 실무 – 한양대 등).

· 축전 소위 만들 — 자료 내용 확보 위한 연구단의 위상.

이대. 성대. 한양. 연세. 홍익 + 소모임 중앙비서 교수. ⇒ 자료집 발간.

"여성이란?" "YDM에서 참가할 여성?"

~~· 5/ 소모임 발족. 특위 발족.~~

· 5/11 전국 총여 간부 결의대회 — JOH 발족식에서.

(여학생운동 결의, 축전 ?, 비동여단 결의, 투쟁 결의).

· 민통여단 : 자료투쟁의 단위별 추진.

(투쟁 고양될 때 YDM단위로 투쟁.

축전대토단 → 지역 ~~[illegible]~~ 단위에서 이야기. 서경 했는지?

· 6/6 ~~전국 축전 투쟁 결의대회~~ (여학우)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과 축전참가를 위한 전국 여학생 대표자 결의대회.

각 지역 보고.

보방 – 전남대.

전여협 결의 결의 [이화여 / 전남대(부)

· 6/28, 29. 4. 한양大에서 8. 여명 민통여단 참가 – 300 참석여 해산.

· 자연수습. ⇒ 실무자 내자.
지역결정 x.

· 임원에게 해결해라 (7月 이후) x

· 아트사업 →.

12/18. 간부회비 · 이경화 치료비 모금.

'89년 과도기 평가.

• 출범 특징 : ① 부문 운동으로서 여학우에 대한 논의 이루어짐

서라
'90의 평가

② 여학우 특징에 관심 가짐 ↑.

③ 전여대협 결속의 만듦.

'89년의 평가

④ :

① 여학생의 참여 ↑ - 결속의 결합.

② 내부 조직 강화 (학생복 등)

③ 미여단 - 의식화 중심 사업이 조직화로 발전 미약.

④ 각 [illegible]에서 여학우 조직 부각.

① 다양한 계기 × (여학우 참여)

② 변화된 조건에 따른 시지침 변경 되고

③ 지도부 체계 × 기반 ×

④ 정치사업 내용 부족 (통일 + 여학우).

• 차례 모게 →.

① 결의 i) 논의 안되었x.

ii) 지역논의 발 위치.

iii) 논의 집중적으로 ×. 사업방안. 전망 부족.

~ 같다 없고

~ 결국 여학우에 대한 고민부족 부서. 이해 없어서.

• 지역 강화는 중이 이뤄졌음. ('89년).

- 같다 내지는 것이 된다.

190 정연합

• 수련회 1月.

• 계속 안 되다가 4/14 회의.

– 지난 해 평가만 간략히 하고, 정책위 모양 확실히 (내용 논의, 사업 일인)
  (투쟁 사업 잘 하자
  (지속적으로 전국조직 만들자
  (각 지역, 강화하면서 하는 게 현실이라는) → 결의.

⇒ 지난 해 평가에서 핵심적인 이견을 끌어내지 못함. 그 해결방도 모색 없이 사업만 하자고 함.
  (연계사업)를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illegible]~~

• 회의, 당아 지금 투쟁 제안만 됨.
  ↳ 서울·경남·경북·우리연합에 주최有(총 5개). 회의 하자고 함.
• 출범 → 이야기만 되고 X.

• '정책단위'로 이름짓는 의장단 회의 보좌로 위치지음. 대표: 서울.
  ↓
  의장단 회의 결합하기로.

방법: 필요성 논의 우선
i) 조직 강화
ii) 정책생산단위 안정화
iii) 미가입지역 유도·지역연대 정치사업들 안에서.
iv) 투쟁방향, 사업계획 긴밀히 수립.

• 여성연합과 독재체 조직만 됨 (교류 차원)

· 부울 '90.

하반기 → . 투쟁이슈. 미국기지건사. 야유회. 여성학회 적절운동.

'88년 ATDS 총대위부터 연대 필요하다.

◎ 경여협 '90 [illegible].

· 상반기 — 주체 ×. (상호 ×).
  대중력 ×.
  · 취업대책위 있었다 하지만, 지도 ×. 한계점.
  · 투쟁 → 회계만 방식 활동, 투쟁 방식을 출현해서 불투명.

· 여성복/학생 차이.

· 하반기 — 강북 수련회.
  대동행사.

· 대전.

· 88년 ATDS 최초 연대.

· 88년 가을 : 양성수 성방위모 가대협 하숙촌? 주제로 실외투(89 만남).

· 여복/학생 차이.

· 89년 강북대회, 축제 5+, 농활 논의, 여름 여대생 대동캠프(150 여명)

· 90년 [illegible] 5月 발족 — 강북/취업여대. 농활. 투쟁.

· 대부분 지역적 연대 ×.

· 취대위 여성위의 힘 (90년 초 [illegible]).
  투쟁 주체 조직여대.

· '89 수여대행. (6개)

간부격리대책 항.

· 전북 '89

인사매매인 양특3 조직 위한 특위 만들어 지역 순대위 참가.

· 전남 '89.

현대노조 지원4+.

강간경찰 구속 위한 대책위.

인사매매 strike. 고비용도 배치악기운동

90-92년도 서여대협 집행국 사업에 대한 평가.　　　Date . / .

90-92년은 87년 이후 서여대협의 사업 성과와 어느 정도 단절된 이후 집행국의 역할이 분명치 못한 상태에서 서울지역 여학생 운동을 발전시켜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서여대협 집행국으로 모여든 시기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서여대협' 이라는 조직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대해서 힘을 집중하기보다, 서울지역 여학생운동을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시도들이 집행국 성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illegible] 서여대협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시도의 결과를 보면서 '서여대협' 조직을 발전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0年>

	구성	활동
1月	3人으로 구성 - 연대 '85 김 회장(84학 투쟁담당). 교육담당 여대 모임 결합. 학습지도. 서울대 '86 임 전산. 취업대책위담당. 동지·남지 결합 홍대 '86 미아. 투쟁담당. 서지 결합. ⇒ 명칭 : 실무자.	총회 토론 취업대책위 모임(10여개 학교 참가) · 자주담당 : 지구연에 결합시킴. (학교) 하방 거의 없음.
3月	회장 활동 중단 - 일방적. 미아 " " ~통고 받음.	학대위 모임 무산.
4月	회장 활동 다시 시작.	5月 여름 수련회 준비 시작. 서여대협 출범식. 회장-여연 자통위 결합.
6月	" " " 중단 - 일방적 외대 '86 현정(동아리출신), 선전담당으로 시작.	총회 준비.
7月	현정 활동 중단 - 활동 자체 어려움, 학교사정	수련회.
이후	진보 혼자 활동.	서울여대 마드모아젤 사건으로 개별 결합하여 지도(학습) (서여대협 전체적인 대응 ×)

○ 우선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명칭에서 보이듯이, 집행국 성원들에 대한 역할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집행국원들의 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집행국 성원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구성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에서 출발하여, 활동중단을 반복하는 집행국원들에 대해 누구도 통제력을 갖지 못했고

MOOKEUK CO.
숭 실 대 학 교

활동하는 중에도 서여대협의 발전전망과 활동방식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었다.

희성은 간부교육 중심으로 생각, 현정은 집행역량 강화·전문화 제기, 정선은 여학운 인자 양성 중심으로 함.

◦ 의장들과 관계에서 – 의장과 함께 하는 집행국 회의 4月 – 5月에 진행했으나 2 이후 중단됨.

의장들과도 서여대협 발전전망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름.

<91년>

• 90년에 대한 평가 : 집행국 자체로는 고립분산성, 서여대협 전체로는 기층토대가 약하면서 대중 사업을 진행하여 기층조직마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함. 간부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91년 집행국 사업목표
  - 집행국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 각 학교 기층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교지도하기 위한 개별결합을 늘리자. ⇒ 간부양성

	구성	활동
2月	3人으로 구성 – 정효 : 국장. 서지 회방. 복지담당.	· 서부지구 각 학교 개별결합(회장 + 핵심집행부와 (주 1회
	진선 : 동지, 여대 담당.	정도 학습·총화모임)
	정형 : 서울대 내부사업 주로, 남지담당.	· 타 지구는 운영위 결합 수준. (동지 제외하고 운영위 별로 안 열림)
	⇒ 명칭 : 사무국.	· 총노선 토론 ⇒ <[redacted]>
6月		사무국 내부 자체 학습 진행 → 서지 몇개 학교에 전파.
8月	정효, 서강대 내부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됨(방대회 이후)	총노선 준비, 기층 제기, 태평양노린연대사업. 범민족대회 이후 여학생통일한마당 준비.
이후		· 지구담당 역할은 실제로 거의 사라짐.
11月	진선 정리	

◦ 집행국의 통일단결은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내부 학습~~ 성원들 모두에게 통일단결에 대한 의지와 요구가 강했고, 내부 학습을 통해서 이론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정리하고, (책임감·친밀도가 높아지면서) 대응해 활동을 결의했다. (여름 ~ 91년 말까지 지속됨)
그러나 실제 각 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는 미약했다. 서울대, 서지, 서강대 해방사업이 각자에게 맡겨졌고, 각 지구별 운영위 결합에서도 그 내용과 개선방향이 함께 논의되지 못했다.

○ 서지에서 학교지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개별결합이 상반기동안 활성하게 진행되고, 학교 상황이 호전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서지운영위 강화와 서지 의장 자리잡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서, 집행국이 서여대협의 핵심이 되기 시작했다.

서울대·서강대 개별결합은 '서여대협'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도 되지 못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집행국 동일단결, 각 학교 기층강화라는 올바른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서여대협 공간 조직 강화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집행국과 각 학교를 막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 서여대협 지구·중앙운영위에서는 기층강화·간부양성사업을 실속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학교 단위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사업만을 제기함으로써 기층단체를 약해지게 했다는 반성 때문. (89년 평추참가운동·취업차별철폐운동에 대한 평가, 90년에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안 자체. 방식의 문제 지구운영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

⇒ 실제로 지구·중앙운영위가 가장 침체했던 시기. (동기는 결합력 높이며 유지됨)

각 학교에서 서여대협을 집행간부들이 중심이 된 조직, 학교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생각함.

<92년>

• 91년에 대한 평가: 집행국 자체정비와 각 학교 여학생·단체 강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 92년 집행국 사업 목표: 91년의 목표를 유지함. 간부양성으로 성과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하려고 함.

	구성	활동
2月	4人으로 구성 – 정은: 국장. 복지 하방담당. 재정. 서총련연대 (4人은 1月에 모임) 중앙 (정현: 중앙사무국원. 남지담당. 선전담당. 전여대협 결합. 신지은(광운대 '88. 총여회장): 중앙사무국원 연대사업담당	1月 일본 미야자와 수상 방한에 대응한 투쟁.
		동·서지는 운영위 중심으로 학교 소회·상황파악하는 정도 결합. 남·북지는 운영위 참가. 더 중요하게는 개별 결합하여 학습과 총학모임 시도 (※ 학교별 해산 인자중심으로 하는 모임만든)
	동지 – 이승아(시립대 '88. 총여회장). 동지사무국.	· 총노선 토론 → 결합 못지음.
	서지 – 고정미(연대 '88. 교육부장). 서지사무국.	
	⇒ 변화: 사무국.	3月 이후 보은진압대행운동.
4月	지은 활동 중단. – 취직.	

5月	전미 활동중단 - 이어서 돌아가심. ⇒ [redacted] 서지사무국 없어짐	총화, 의장 옹립. 의장과, 사무국장 - 사업상, 회의중심 만남 / 남지부장 - 총화 모임의 성격, 학습.
6月		기술(송아 [redacted]가 담당) 녹취(정현 담당), 8月 방대비.. ↳ 서여대협으로 학우들 포괄 시작.
8月	·동지 사무국 없애고 중앙사무국으로 통폐합.	· [redacted] 송아 동지하방 → 개별 학교 학습, 총화 소정 결합으로 바뀜.
10月		· 윤 금이씨 사건 투쟁. · 선거 后 93년 서여대협 준비작업으로 (*) 6인방 결성 ⇒ 여학우에 뜻을 둔 (여학우로) 사람들의 모임, 학습, 총화, 전망 고민.
12月	대선 준비위원회 체계로 바뀜. (이후 전망자들 포함)	대선 활동 (선전내용 작성 등)

° 간부양성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려고 하면서 집행국 위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어떻게 간부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집행국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학교 개별 하방 ⟶ 6인방 결성 등으로 발전단계 거침.

⇒ 전 과정에서 주체는 집행국 성원 일부(총반의 경우, 하반기에는 함께), 대상은 골간 간부를 비롯한 각 학교 현역 간부들. 서여대협 건설 자체는 간부 양성 문제와 어느정도 무관하게 바라보았다.

° 집행국 자체 학습은 진행 ×, 일부 성원 사이에서만 학습 계속 함 (92년 말까지)

° 실무 집행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면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문제의식 생김. 실질적 사업 집행하면서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낌.

• ⇒ 집행국 확대·전문화 필요성 제기.

⇒ 92년에도 '집행국 중심의 서여대협'은 탈피하지 못함.

대중사업 진행하면서 지구·중앙운영위는 그에 대한 책임성 지면서 활발해졌으나, 사업[redacted] 결의 단위로 기능. (논의 잘 안됨, 사업 外 이야기는 잘 안 나옴).

(지구운영위로 만날 것, 상황 알기 위한 회의 정도
⇓
지구사업에 대한 총화가 지연히 그리 충실해지지 못함.
⇓
지구의장들 中 간부양성사업은 주 대상으로 되는 사람들과 결합 늦임. 나머지 지구는 소외하지만 지구사업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학습을 위한 만남 성격이 많음.)

'93년까지 서여대협 취업차별철폐운동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결론보다 문제제기가 많은 글이 될 듯하다. 2만큼 취업차별철폐운동은 방향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흘러왔다. 단 하나,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나 지금이나 취업차별철폐운동은 여학우들의 절실한 요구라는 점이다. 93년 초 전대협에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자. 여학생의 40%가량이 학생회에서 해야할 일로 취업문제를 꼽았다. 이는 남학생의 10% 정도가 그렇게 답한 데 비해 엄청난 차이이다. 2만큼 여학생들이 취업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취업에는 '차별' 문제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절실한 요구를 어떻게든 모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평가를 시작해보자.

2. 취업차별철폐운동 평가.

1) 89년.

89년 하반기, 많은 학교가 참가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의도아래, 취업차별철폐운동이 서여대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운동은 서여대협 산하 취업대책위원회(위원장 없음, 취대위 담당자+학교 주체들 4-5명이 중심이 됨)가 주도적으로 벌여나갔다.

당시 취대위는 취업차별문제를 자본주의에서 여성노동의 이중착취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별 간담회, 선배와의 만남등이 과에서 이루어졌고, 여성학교·취업특강 등이 총여에서 이루어졌다. 서여대협은 초기에 전산계열 학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만들까 하다가(84년 MBC 앞에서 신방과 여학생들이 시위했던 것을 본따서) 실패하자 4개기업을 차별모집광고 1부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고평법 시행령 개정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그러면서 몇 번의 시위를 벌였다.

과단위 사업은 과 여학생 조직의 건설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특히 남학우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단위가 되기도 했다.(모범으로는 중앙대를 들 수 있다) 총여 사업도 당시에는 신선했고, 서여대협 사업은 최초로 고평법 관련 소송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서 여론의 호응을 얻고 국민적 공감대를 탈 수 있었다. 또 당시까지는 가장 많은 수의 학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여, 서여대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조직적·대중적 성과를 남긴 사업이었지만, 2 한계가 분명했기에 이후사업은 오히려 퇴보하였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취업차별문제를 3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대학생 전체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는 싸안지 못하고 여대생 취업차별문제만 다루게 되었다.

또한 매우 대중적인 내용의 운동을 소수 간부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하나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장정적으로 기업과 정부로 맞춰졌으나, 2 선이 분명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4개기업고발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장기적인 방향성 속에서 기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었고, <2> 따라서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다. (이후 기업에 대한 싸움이) 정부에 대해서는 왜 비난하는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 무작정 처음부터 반정권투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처음부터 반정권투쟁으로 무리하게 초점을 돌리려고 하였다.

2) 90년.

90년 4月에 검찰이 4개 기업을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 여론은 큰 관심을 보내고 너무 미미한 제재라는 평을 보냈다. 그러나 서여대협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4개 기업에 대해 사과광고 등을 촉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에는 운동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흔들렸다. 그 전까지는 10여개 학교에서 취업대책위(부총여장이 맡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함)를 부리고 서여대협 집행국 1사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나갔으나, 서여대협 차원의 활동이 없으면서 모임은 부산되었다.

90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학교에서는 주로 취업정보제공과 취업관·직업관 정립을 위한 강연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당시부터 이미 각 학교의 취업관련 사업은 시사성을 잃고 취업정보제공 등으로 기울어져 갔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부족하지만).

90년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89년 사업주체들과 인적으로 단절되면서 (취업문제에 대한 집단적 고민을 계속 끌어나가지 못하고) 89년 4개기업고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 해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반기에 검찰 대응에 대한 여학우들의 힘을 더 모았다면, 취업대책위가 활력을 찾고 함께 이후 사업을 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더군다나 89년 사업의 한계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취업문제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싸움에서 기업선정의 기준이 모호했던 점,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근거가 별로 없었던 점 등이 90년 상반기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취업차별철폐운동의 방향성에서부터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 혼란은 이후에 계속하여 수습되지 못했고, 취업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각자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3) 91-92-93년.

이 시기 (대중운동으로서) 취업차별철폐운동은 한 마디로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층에서이지만, 각 학교에서 취업상담실 증설 등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이다.

3. 이후 주체들에게.

우선 취업차별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을 공격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생존의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실제 변화가능성이 별반 없다. 정부의 고용정책, 경제정책 문제를 짚고 들어가면서 공무원이나 정부 산하 기업들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면 좀 쉬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7급?) 돌려야 사회 전체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는 중앙단위에서만 꽁꽁 싸매지 말고 각 학교의 힘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모아보기를 권한다. 어떻든간에 각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실현가능한 일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시작하다 보면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열의도 높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운동도 찾게 되기 마련이다.

* 몇가지 생각해봤으면.

- 장애인 취업문제 해결 사례.
  - 쿼터제, 정부출영기업·공무원에서부터 실시, 장애인취업안 시키는 기업에 벌금 → 기금 적립 등.
- 지방대학·건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 나서는 사례.
- 여학우들이 어떤 자격을 가장 선호하는가? 그 자격의 남녀차별정도와 관계가 있는가?
  남녀차별이 사라진다면 어떤 자격을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가?
  ↳ 실제 차이를 비교해볼다면….
- 실제 취업준비 하는 졸업생들을 포괄하는 것.
- 차별이 덜한 자격을 택하는 여학생들도 격려해줄 것.

'93년까지 서여대협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평가.

1. 들어가며.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그런 논의들은 다분히 생존권적 차원에서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많았고, '자주권의 확립'과 '통일'과는 어느 정도 분리된 '평화'를 중심으로 들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학생운동의 입장에서는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통일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 대만 몇년 동안의 작으나마 소중한 경험들이 있을 뿐이다.

청년학생운동 전체로 보다면, 통일운동의 지향과 목표는 크게 발전해나갔으나, 대중화라는 면에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대중에 대한 선전의식화사업의 기본내용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정세에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었다.

이 글은 여러 면에서 무척 불충분하다. 통일운동에 대한 관점 정리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우리의 경험에서 자주통일운동은 여름철에 하는 운동으로 머물렀기에, 이를 극복할 방도도 뚜렷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이 글의 한계이다. 더구나 통일운동을 여학생운동의 입장에서 해나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토론되고 평가된 적 없기 때문에 글쓰는 이 개인의 의견이 많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부하고 싶은 것은, 자주통일운동은 현단계 우리 운동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점 자주통일운동은 더할 바 없이 중요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통일조국 건설과정에서 2계급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 2계급 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리라는 점이다.

· 빠르면 내년, 늦어도 5년 이내에, 2계급 계층이 통일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2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또 하나, 자주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만큼 열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벌써 몇년 동안 교류를 허용받아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이데올로기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주체역량 문제는 좀 제껴두더라도, 이만한 조건을 아직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2. 93년까지 서여대협이 벌여온 자주통일운동

1) 북한여성바로알기 등 통일의식화운동.

사상 처음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인 곳이 바로 서여대협이다. 88年 고대·연대 등을 중심으로 벌여진 북한여성바로알기 사진전은 연대 총여학생회장 구속까지 몰고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북한바로알기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여성바로알기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초기에 특이소·밥공장 등 가시노동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제도 문제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북한 여성들이 남한여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적 여건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 대해 '사람이 사는 곳'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질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90年 이후, 북한여성바로알기운동은 학우들의 관심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학우들의 관심은 제도나 풍물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북에 대한 거부감을 쉽게 없애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상화, 독재체제라는 생각이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한의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적 가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가 궁금해한다. 여학우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여성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발목여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여성학자들이 대체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남북여성교류에 참가한 여성운동가도 이런 말을 빼뜨리지 않는다) 결국 이 의문들을 한데 모아보면, 제도(사회 여건)는 마련되어 있지만 독재와 가중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살지 않느냐는 것이다.

93년 서여대협 자료집에 실린 글은 이런 문제에 부딪혀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북한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여대생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 것이다. 북한 여성들도 평등과 자주적 인간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으나, 아직 내용도 미비하고, 많은 학교에서 이용되지 못했다. 그동안의 북한여성바로알기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각 학교마다 제대로 평가하고 총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여학생의 입장에서 '자주와 통일이 정말 필요하구나' 느끼도록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되어왔다. 엄밀히 말해서 정신대문제나 기지촌 문제는 여학생이 살아가면서 쉬 느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여학생들이 크게 느끼는 성희롱문제나 성문화의 혼란문제, 취업차별문제 등에서 자주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문화와 관계해서 자주청학련 문제가 조금은 제기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88년 ACDS 추방운동은 주목해봐야 한다. ACDS 근원지가 미로부대임을 알리고 정기검진, 미로철수 등을 내세웠는데, 성문화 문란 문제로 좀 더 연결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다. 당시에는 충격적이지만 당장 여학우들에게 '자기 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화작업을 시도한 것은 89년 청축에서 7센타(여성·인천) 참가준비를 하면서였는데, '여성-여학생들의 생활상 문제를 자주·통일과 연결시키는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고 여성-여학생들의 현실을 그저 정리하는 데 머물렀다. 〈자료를 찾아볼 것〉

93년 서여대협 자료집을 읽어보길 권한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식을 정리한 것이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 · —

위의 두 가지 큰 내용에 대한 의식화작업은 자주통일운동에서 꼭 밟고 들어가야 할 첫단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껏 그 계단을 제대로 밟지 않고 건너 뛰어왔다. 대중의 기본적 인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어떤 운동의 대중화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93년에는 기획에 모든 사업역량이 몰리면서 의식화 사업이 더욱 경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기획이 자주통일운동으로 자리잡으려면 이 의식화사업이 잘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연대사업수준에 내내 머무르고 말 것이다.

우선 북한여성에 대해 여학우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 이질감을 느끼는지 제대로 파악해보길 권한다. 막히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찾고 알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대책은 모두의 머리 속에서 나올 것이다.

또 여학생들이 언제 자주통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바란다. 기획경험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기획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생각을 가장 절실하게 갖게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취업 같은 문제에서는 자주·통일의 필요성이 직접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도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식흐름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여학우들이 느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의식화사업을 벌이기를 권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의식화사업이다. 94년에는 이 의식화사업이 기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2) 자주교류운동.

89년 청축 참가운동을 하면서 자주교류운동을 시작했지만, 서여대협의 자주교류운동은 상층 위주의 소수의 운동에 머물러왔다. 89년 청축 참가운동에서는 '민족통일여학생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교류의 주체로 이들을 분명히 세운 것은 아니었다.(선봉대 수준)

90년에는 천개의 교류운동 흐름 속에서 독자적 교류를 위한 방북사업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92년에는 전여대협이 이북의 여맹 또는 조선학생위원회와 교류하는 것을 제안하고 서신도 보냈지만,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두 경우 모두 문제는 상층 위주의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정신대 문제 대책 공동 논의)

자주통일운동에서 자주교육의 중요성은 여러번 나와 있지만, 서여대협에서는 이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기빵 - 미군범죄근절운동.

기빵은 제1기, 2기부터 서여대협의 사업이 되었고 안정화되었지만, 미군범죄근절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윤금이 누이 사건부터이다.

기빵은 기지촌 여성들,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미군이 남긴 침략의 흔적을 찾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자주통일운동의 성격도 가진 연대사업으로 자리잡아왔다. 93년 기빵에서는 반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들과 만남을 모색할 것, 미군기지방문 - 클럽방문 - 지역견학 - 지역단체방문 등의 부대활동을 좀 더 강화할 것이 제기되었는데, 여성들과 만남이 좀 안정화하지만 부대활동이 내용없이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치밀한 내용적 준비와 실무 준비가 없이는 기지촌의 3성구성을 제대로 보고 듣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겨야 한다.

미군범죄근절운동, 곧 93년 윤금이 누이 살해미군처벌운동에서 서여대협은 큰 역할을 했다. 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실제로 담보했고 그 성과를 기지촌활동으로 모아내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알려냈다. 그러나 문제를 꼽는다면, 투쟁 과정에서부터 기지촌여성의 삶을 제대로 알려내지 않고 살해미군처벌을 위한 투쟁 일변도로 나가서, 그 운동에서 가져야 할 여학생조직의 입장이 분명히 알려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공대위 전체의 문제로 드러났고, 이 문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건설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는 여성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지촌여성·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의 혼란기 속에서 서여대협이 운동본부 건설 이후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서여대협은 여성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와 기타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대부분 성범죄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빵대원들이 그 대중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윤금이 씨 투쟁이 여학우들 삶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었던 사실, 곧 위의 투쟁들이 학교의 역량에 부칠 정도로 집중해 놓여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서여대협 사업의 중심을 명확히 세우고 이러한 투쟁은 함께 해야 한다. 현재 전체 미군범죄근절운동의 수준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의 일이건 누구의 일이건간에 미군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에 참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 미군범죄의 역사성을 밝혀서 미국의 침략정책들과 연결시키고 미군범죄에 대한 반감을 반미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미군범죄를 무지한 미군 개개인의 품성 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 미군범죄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보면서 미군병사들에게 호전적 습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게 되는 문제이다. 집단적으로 핵전쟁 살상연습을 하는 미군이 개인적으로 얌전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얌전해

지지 않는다. 더욱대나 서면호 사건 이후 상상연습은 계속되어왔다.

두번째, 사이 곳곳에 파고들어온 미군범죄를 살살이 밝혀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살인, 강간 뿐만 아니라 불법 세금 포탈, PX 암거래(특히 쌀 유출!), 공해 유발, 폐기물 유포 등 미군으로부터 비롯된 사태들을 일소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물론 하나씩 증거를 찾아내가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증거들을 찾아야 하고, 또 찾을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유포 문제는 여학생운동에서 밝혀야 하는 일이다. 이 문제야말로 기지촌 현실과 여학생들의 생활을 연결시켜줄 것이다.

4) 정신대문제 - 일제전쟁범죄문제에 대한 운동.

이 운동은 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 방한 때 피켓 시위 참가로 시작되어 92년 여름 이후 각 학교의 정신대 할머니 간담회, 기금마련 장터, 일일찻집, 후원회 결성 등으로 이어졌다. (90년에 서여대협이 정대협에 가입했으나 별 활동 없었음) 93년에도 두 차례의 수요시위가 서여대협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전쟁범죄(정신대문제 포함)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배상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는데, 남북공동대처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전여대협 차원으로 벌어진 이 운동은 92년 여름 남북교류로 진전했고, 이후에 남북여성교류의 주요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 후 93년에는 범추본의 중심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발전양상에서 보듯이, 이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단순한 과거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운동은 남북이 연대하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서상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연방제 통일의 상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이 운동이 계속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학생단위에서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적인 이유는 학생들 고유의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간부들 속에서 일본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미뿐만 아니라 반일도 중요함이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사업의 전개방도가 논의되어야 한다.

'시위'라는 높은 형태의 운동보다는 더 쉬우면서도 대중적인 형식의 운동부터 새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 운동 자체로서도 대중화가 더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 대중적 형식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무리하지 않게 결합시켜나가면서, 후원회 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후원회의 고충은 기부들과 달리 정신대 할머니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정신대할머니들이 맨처음 투쟁에서부터 참가하게 된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정대협과의 관계 문제도 포함) 만일 다시 후원회 등을 시작한다면, 그 문제부터 새롭게 파고들어가봐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이 일반 여학우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래도 왜색문화문제가 아닐까 한다. 원래 92년 1월에 시작할 때도 일본문화 수입반대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니만큼, 장기적으로 연결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글을 마치며.

좀 산만하게 쓰고 나니, 어떤 형식 없이 이것저것 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준 듯하다.

글을 마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자주 통일문제에 대한 여학생들의 의식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생명력 넘치는 자주통일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세의 흐름과 학생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학우들의 의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고싶다. 90년 천개마 교류 문제나 91년 연방제 통일방안, 박 성희·성용승 방북, 92년 범청학련 결성 등 청년학생운동에서 통일운동은 급격히 내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93년 핵문제만 해도 사실 여학생운동단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전체운동이나 정세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학우들이 관심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며 자주통일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사업을 당분간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주장을 대중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잡고나면, 더 필요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사업으로는 기념과 미군범죄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물론, 실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안들은 적어도 잊지 않게끔, 후대에는 더 잘 벌일 수 있게끔 경험을 이어주고 조금씩 시작해보는 방법도 크게 문제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1993년 제 7기 서여대협 기지촌여성연대사업 평가.

1. 글을 시작하며

90년 한 여대생의 자원활동으로 시작된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은 4년 동안 늘부시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외형에서 보이는 발전이야 우리들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한 사람의 자원활동이 2 과 학생들의 후원회 활동과 자원활동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대, 서강대, 건대 등 몇개 학교 총여학생회, 여성국이 나서서 방학을 이용한 '기지촌활동'을 만들어냈다. 92년 서여대협 자원에서 10개 여 학교 50여명이 기활에 참가하고, 과에서 후원회를 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서여대협과 각 학교 총여학생회는 92년 겨울과 93년 상반기에 유 승이 누이 살해미군 처벌운동을 열심히 벌여냈다. 93년 제 2기 기활에는 15개학교 140여명이 참가했고, 기지촌하루방문까지 합치면 300여명이 93년 여름에 서여대협과, 또 기지촌과 만났다.

이러한 외형상의 발전은 뒤에서 계속 쓰게 될 터이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2 외형의 발전 안에서 이루어진 내부의 성과는 무엇인가, 곧 지금 서울지역의 여학우, 또 남학우들에게 2 4년 동안의 성과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4년전의 우리에게 기지촌과 2곳여성들이 무지의 대상이며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2들은 어떤 존재인가? 4년전의 우리가 2들에게 2저 동떨어져 살아가는 타향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지촌과 2곳 여성들을 대하고 있는가?

변했고, 또 발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렵기만 한 첫만남이 자연스러운 인사로. 바뀌고 있다. 기지촌에 가면 곳곳마다 또 사람 사람마다 ~~[illegible]~~ 배어있는 식민지의 아픔과 분노를 통째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설익은 '활동가'의 조급함보다는,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라는 동질감을 느껴보고 천천히 2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겠다는 차분함을 가지고 가는 기활대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차차 서로 믿음이 쌓여가고 기활을 대여온 학우들도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는 듯 보인다.

이런 것을 '연대의식 수준'이라고 부른다. 서로가 서로의 참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느껴가고 있는가, 서로에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가슴안에 있는 희망을 얼만큼 똑똑히 찾아내고 있는가 —.

연대의식수준을 똑바로 알아내는 것은 연대사업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보건대, 93년 서여대협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이 이러한 첫걸음부터를 차근차근 내디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94년 연대의식수준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에서부터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을 시작하고, 2 수준을 어느만큼 발전시켰는지 연대사업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연대사업을 끝맺음하길 바란다. 얼마나 많은 수의 학우들이 기지촌과 2곳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았는가가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의 가장 중요한 평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93년 사업이 남긴 연대의식수준의 발전을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93년 사업을 마무리할 때 2점에 대해서는 2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실제~~ 논의와 지도가 중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대의식수준발전 문제도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바꿔 말하면, 실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논의되고 이루어져야만 연대의식수준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들게 된다는 말이다.

이 글의 중요 내용은 93년 기활을 위주로 되어 있다. 원래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이라고 시작한 이유는 기활 말고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인데, 실제로는 기활만이 서여대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93년 기활을 평가한 후 이후 기지촌여성연대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려고 한다.

2. 93년 제 2기 기활 진행 상황.

1) 93년 2기 기활의 문제의식과 목표, 계획..

① 통일적인 기활 : 서여대협 차원의 집중성을 높이려고 함 → 기활추진위 결성, 기활학교, 정리 모꼬지.(공동발대식 모색)

② 개척하는 기활 : 기활가는 지역을 넓혀보려고 함 → 용산 아달레나의 집, 동두천 대비타의 집에 가게 됨.

③ 대중적인 기활 : 참가인원을 늘려보려고 함 → 기지촌 하루 방문 대중적으로 하자, 지역 확대.
많은 학우들이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함 → 기활 수기공모, 기활보고대회 모색.

④ 윤금이 투쟁의 하반기 토대가 되는 기활

이밖에도 성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높여보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자세한 것은 기활자료집(P.5.6) 참조.

2) 진행과정

· 3月 말부터 기활 잘 하자고 결의, 논의, 집행중 ~~다~~ 기지촌여성연대사업담당 신설.

· 4月 말 준비 시작하자고 결의.

↓ 개별적으로 고민.

· 5月 10日경 기활추진위 건설 준비 시작.

↓ 92년 경험자들 개별 만남, 기활 1·2차 제안서 나감(주체 마련 촉구, 의의와 목표)

· 5/21 중운위에서 기활추진위 결성.

· 5/22 총회 때 기활 1,2차 제안서 발제하고 학교주체 모임 결의, 기활추진위 결성 인준.

· 5/24 기활추진위 학교주체 모임 1차 회의. — 17개 학교 참가.

— 기활 의의, 목표 논의.

· 5/31 학교주체모임 2차 회의 – 5개 학교 참가.

— 대략 교양 내용 논의, 교양준비팀 구성 (서강대 1人 + 한양대 1人 + 기활 담당)

· 6/1 두레방 실무자와 만남 가짐.

— 상황 교류. 두레방 실무자 MT에서 기활 준비 논의된 것 공유, 대충 일정 정함.

· 6/5 교양준비팀 활동 시작 (모임) ~ 이후 7月 5日까지 이어짐.

· 6/7 학교주체모임 3차 회의 — 8개 학교 참가.

— 두레방 실무자와 간담회: 여성들의 삶, 기지촌의 형성, 두레방 활동 소개, 기활에서 유의했으면 하는 점, 기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 6/9부터 자료집 준비 시작, 지역별 교양학교 준비 시작.

- 6/11 기활추진위 위원장 + 집행국의 중간 점검.

i) 지역주체들 세우고 위원장 + 지역주체 + 기획실이 '기활추 중앙회의' 꾸리기로 함.

↳ 학교주체모임에서 사업논의력·결정력 갖기 힘들고 불안정하기 때문.

ii) 학교주체들 역할 정리. → 이후 기활주체 교양모임으로 계속되다가 (기활) 사라지게 함.

지역주체 "

위원장 "

기획실 – 교육담당 " .

iii) 일정·지역 논의·가결정.

· 6/15 경기여대협 실무자와 만나서 함께 할 것 논의 ~ 더 진전되지 못함.

· 6/17 기활추 중앙회의 1차 회의 열림.

— 막달레나의 집 가게 되어 일정·지역 대충 논의. 학습기간 일정 결정.

· 6/17 기활주체 교양 모임 – 17개 학교 참가.

— 미매춘의 원인, 기지촌 발생원인, 대안 논의.

· 6/22 일정 확정 (이후 변경될 것까지 함께 서술)

	의정부	동두천 두레방	다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 (배달출장)
7/5 ~			서강대	
7/12 ~	연대(이화여대)	연대(목원대)	이대	한신대+고대
7/19 ~	연대	이대	서강대	단국, 숭실, 성공회,
7/26 ~	홍익대	서강대	건대	서울대.
8/2 ~	한양대	한양대	광운대	

7/12 서지·남지 기말평가

7/19 동지·북지 "

7/23 서지·남지 하루기행

8/5 동지·북지 "

8/7-8 정리 모임.

· 6/24, 25 학교실무자주체들, 각 단체 방문

~원래 예비 '기활'로 예정했으나 준비안되어 방문에 머무름.

- 이후 계획대로 진행.

3. 93년 제2기 기활 평가.

먼저 연대사업에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연대의 주체 서로가 스스로 주체를 세우고 사업에 임할 것이 그 첫번째요, 상대의 실정에 맞게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일이 그 두번째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연대사업은 진정한 성과를 남기 어렵다.

92년 1기 기활에서 부족했다고 주로 지적된 점은 앞의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의 처지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성과를 남기려고 하지 못하고, 상대의 처지나 활동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자체의 구체적 성과는 챙기지 못했다. 이는 제 1기 기활이라는 조건에도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93년 2기 기활은 이에 대한 평가 속에서, 주체의 성과로 남기려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 뒤에 쓰겠지만, 기활추진위 결성이나 서여대협 차원의 교양, 대중화의 노력 등은 그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제 활동에 대한 파악의 정도가 모자라서, 활동 자체나 가치를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가는데서 많이 주춤거렸다. 앞서 이야기한 '연대의식수준'을 높이는 일이 대원들 교양이나 여타 활동에서 보다도 실제 그 곳 현실과 여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기 기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가지 문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 힘과 자극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학생들의 주체적 발전을 이루려 하는 서여대협 간부와 기지촌단체 실무자가 이런 요구들을 학우들, 여성들 속에서 잘 읽어내고 깊이 새겨서 잊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만 한다. 곧 '연대모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가 해야할 일을 분명하게 나누며 모자라는 점, 잘못된 점들을 빨리빨리 서로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연대사업을 평가할 때, '연대'에 대한 평가, 자체 준비에 대한 평가, 실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차례로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1) '연대'에 대하여.

제 2기 기활에서 기지촌단체와 연대는 우선 서여대협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특징과 성과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사업과 준비할 일들을 제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연대상대방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혼란을 거듭했다고 봐야 한다. 1기 기활과는 달리 대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에 더 가게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레방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두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곳으로 가는 대원들 관리, 자료집 만들기 등) 대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과는 아예 연대관계 자체를 별로 시도하지 않고 2지 기활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대비타의 집에서는 몇사람 주도에 학생들이 이끌려갔고, 막달레나의 집에서는 아예 상황조차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변동되는 일이 많아져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정도였다.

연대모임의 기본내용은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과 실제활동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다른 일들만 이야기했던 것, 또는 다른 일들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93년 2기 기활 연대모임의 수준이었다.

기지촌단체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요, 현장활동에 대한 교육이다. 이 점을 잘 살려서 연대모임(또는 개별만남)의 내용으로 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교양 등에서 그들의 경험을 최대한 이론과 하나로 뭉뚱그려서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두레방이든 어디든 별 차이는 없으나,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기활을 오래 받아온 두레방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아직 학생들을 고려하는 이야기를 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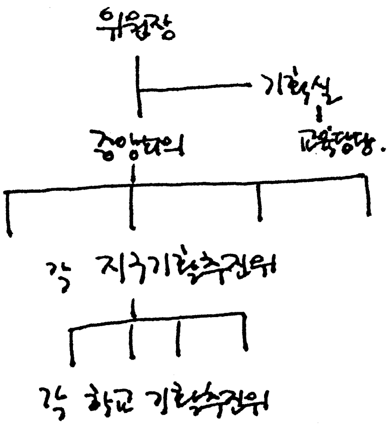
서여대협이 연대모임을 통해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그 단체 사무실에 자주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인간적인 심리관계를 쌓고,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들거나 느껴보고, 기간과 활동형태를 빨리 정하는 일이다. 가능하면 5월 중순 경까지는 활동형태를 대충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93년의 경우 활동형태를 이야기해놓았다가도

실제 활동은 불가능해지거나 (대중들이) 별 의미를 못찾고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부업 돕기 등)

① 참가.

2) 조직에 대하여

2기 기획의 가장 큰 성과는 기획추진위라는 조직이 서서 활동을 벌여나가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지구 주체 정도로 예정했지만 지구별로 기획추진위가 꾸려졌고, 몇몇 학교에서도 기획추진위가 구성되어 힘있게 활동해 나갔다. 초기에는 학교주체모임만 있는 어정쩡한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6月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중앙위의 운영, 서울 중등위에 기획추 총화·추동. 전체 흐름 잡고 내용 생산.

: 흐름총화, 기획·교육·연대 담당.

: 지구 흐름 총화, 지구운영위 정치사업, 기획추 전체사업 논의.

: 학교 기획 준비, 대중관리. 기획추 실무 함께 할 수 있게 함.

하지만 6月 하순이 지나면서 중앙위의가 부실해졌는데, 그 이유는 실제 활동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되지 못하고 교양·준비 위주의 조직체계였던 데 있다고 하겠다. 곧, 한 지구가 1~2주 안에 모두 기획을 훑어지나 가는 방식인데 지구기획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니, 준비작업·교양작업까지는 유용하지만 실제 활동에 들어서서는 무력한 조직체계가 되고 말았다. 원래는, 위 체계가 범민족대회 (준비) 등 통일운동을 지구별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리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범민족대회준비가 (총여사업의) 중심이 되기보다 기획자체가 총여여름 사업의 중심이 된다는 점은 고려하였어야 했다. 배움방에 남지가 함께 가면서, 실제 활동이 부진하고 힘들었지만 최소한 지구차원에서 한번이나도 그에 대한 집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 조직 편제 - 지역 배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서도 실제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가 총화되지 못한 점은, 위 조직체계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활동할 학교주체들과 가치출당체실무자, 또한 대중들이 스스로 연대를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다. 93년에는 이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실제 활동에서 서로 의견 차이나 부딪힘이 꽤 있었다. 학교기획준비주체들과 직접 연대가 가능하게끔 하려면, 6月 초 정도에는 인맥을 만들고 최소한 한달 이상 스스로 만나고 풀어내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대를 잘 하는 방법을 서어대향에서 함께 논의하고 지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실제 활동에 대해서.

2기 기학에서는, 그동안 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교(이대, 연대, 건대, 광운대 등)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경험이 있는 학교는 실제 활동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원들이 성과를 찾기는 반면에, 처음 한 학교에서는 실태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특히 배움공부방에 간 남자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또 탁아-공부방이라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혼동하는 팀도 있었으니, 이는 실제 활동과 준비의 미비를 드러내준다.

93년 평가에서 각 학교의 활동이 충분히 총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94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해 활동의 총화를 바란다. 연대는 안정된 활동을 벌였고, 건대의 경험은 대버려의 집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서경대와 시립대의 활동도 주목하기 바란다.

2기 기학에서는, 본활동인 탁아-공부방보다 오히려 복대·클럽 방문, 지역단체만남, 지역조사, 부업 돕기 등의 활동이 강조된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93년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집에 나온 이상과, 실제 대원들이 경험한 현실을 비교해 보면, 과연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꼭 지적해야만 하는 것은 하루기학(실제는, 기지촌 하루방문)이다. 대중적 요구 수용을 위해서 기획한 것이지만, 93년과 같은 형태로는 동두천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좀 더 적은 수(5~10명)으로 분산시켜서 거리 방문, 클럽·기지 방문은 여러 차례 추진하든가, 대규모로 소요산 등반과 기지 주변 구경을 추진하든가 하는 방법, 또는 1박 2일로 철원-소요산 등반 등을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지촌 실정에 맞게끔 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하루기학 이외에도 기학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기학이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대중화를 강구하게 되는데, 대중화를 직접 앞세우기보다는 그 곳 실정 속에서 적합한 형태로 대원수를 늘려가고 간접적 대중화를 꾀해야 한다)

기학의 간접적 대중화에 중요한 것은 학우들에게 기지촌 현실을 알리고 기학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한양대에서 한 하루주점이라든가, 광운대 활동, 연대의 과별 기학 소개는 주목할 만한 모범이다. 93년에 새로 시도한 것으로는 8.15 범민족대회 때 기학보고대회와 10.28 윤금이 1주기에 맞춘 기학수기공모전을 기획한 것이 있다. 총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두 사업 모두 대중적인 방법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기공모전은 중요한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5) 예산에 대해서.

광운대에서 학교지원 받은 것은 모범적이다. 한양대 주점도 고려해볼만 하고, 서여대협에서 기학에 필요한 돈은

무조건 모두 25 학교에서 추렴한다는 것을 관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은 93년 재정현재 <9> 참고)

좀더 증액해야 할 돈은, 기활추진위 자체 운영비·활동비이다. 93년에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보조 강사료는 대폭 올려야 한다.

3. 기활의 장기적 발전방향.

단기 발전방향은 이미 다 썼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장기적 발전방향을 쓰려고 한다.

첫째, '기활' 외에 일반 매매춘 지역에 대한 활동을 늘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 매매춘 쪽에 활동하는 단체가 더 많고,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청량리 다일공동체, 용산 막달레나의 집, 청호동 쓰나의 집 등에는 적극적인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활' 외에 기지촌에 맞는 다른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기지촌방과후실태조사나, PX 쌀 유출 등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지촌 미군 범죄 피해자 등.

셋째, 매매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구기획추진위가 각 학교 기획에 대한 실제 총화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단위편제가 좋으리라 본다. 예컨대 서지는 무대방, 동지는 대배달의 집…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지구기획추위원장의 실제 활동력을 잘 타산해서, 실제 활동에 대한 총화를 할 수 있는 조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각 학교 기획추진위가 '위원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사업으로서 힘을 갖고, 집행부들만의 일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조비주체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광운대, 한양대, 연대 등의 조직경험을 살리면 좋을 것이다.

3) 교육사업에 대하여

어쩌면 2기 기획에서 기획실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이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한국 사회의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글을 쓰고 강연을 준비한 것은 교육국세팀의 큰 성과이다. 미국·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매매춘 문제를 통일되게 보려고 한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 정부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양학교를 열고 서여대협의 힘을 모았다는 점은 성과적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사업 역시 이론적 문제와 그 곳 상황에 대한 소개에 머무르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내용교양은 거의 없이 학교별로 맡겨져 버렸다.

이 문제는 바로 교육사업의 주체문제로 연결된다. 실제 활동교양과 기획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교양 등이 교양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이론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예전에 기획을 경험했던 학우들과 당시 기획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스스로 교육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교육사업도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교양학교에 대원들 일부만이 참석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는 소설이나 개론서, 비디오 등으로 교육하려고 하는데 기획추진위 중앙에서는 이에 힘을 돌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려운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관점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비디오 소개평론을 쓰거나 소설평을 써서 토론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3년에 이룬 이론적 성과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체 내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연구자집단과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실증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좀 더 대중적인 교육내용 마련에 돌린다면, 차차 이론적 연구를 할 역량도 대중적으로 생겨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 문장규칙**

1.텍스트 파일로 작성하며 파일명은 자신의 이름.txt으로 하세요.

Ex:홍길동.txt

2.하나의 파일에 1000개의 문장을 만듭니다.(문장에 번호 매기지 마세요. 문장의 개수는 액셀등으로 확인하세요)

3.<<건강/레져, 교통, 금융, 날씨, 사업/업무, 알림, 약속, 인사/안부, 주식, 학습>>

위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장을 각각 백문장씩 다양하게 만듭니다. 같은 문장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단어만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를 보낼때처럼 만들면 됩니다.

Ex: **홍길동 : 건강/레져**

다음 달부터 나하고 같이 헬스장 다닐래? 등 100문장

홍길동 : 교통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너무 많이 막혀. 등 100문장

홍길동 : 금융

내일까지 오만원 내 통장으로 꼭 계좌이체 해줘.

홍길동 : 날씨

우리 만날 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홍길동 : 사업/업무

내일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

홍길동 : 알림

다음주 반상회가 있으니 모두 참석 바랍니다.

홍길동 : 약속

비도 오는데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할까?

홍길동 : 안부/인사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홍길동 : 주식

너 주식 때문에 돈 좀 벌었다며?

홍길동 : 학습

그 수업은 이번 학기에 재수강 해야 돼. 등등

4.모든문장은 한 문장 당 한 줄입니다. 80byte이내(띄어쓰기포함40자이내)로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문장 부호 입력해 주세요.(마지막에 한번만 입력)

5.문장에 고유명사(특히 가게이름, 사람이름 등 불가, 지명의 경우는 #처리)를 쓰지 마시고 숫자의 경우는 한글로 풀어 쓰세요.

Ex: 언니 오늘 저녁 일곱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강남역

(역이름 등 고유명사 경우 문장 뒤에 #처리해 주세요)

6.비속어 쓰시면 안되고, 맞춤법에 맞게 해 주세요.(워드나 한글에서 맞춤법 검색으로 확인 후 보내주세요.)

7.완성된 파일은 기한 내(일주일이내)로 담당자(이지민 behush@naver.com)에게 보내주세요.

8.문장이 너무 많이 중복맞춤법 교정이 너무 많을 경우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특히, 작업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한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작업 후 메일전송하시면서 본인 성함.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세무서류 작성에 필요합니다. 확인 후 입금해드립니다..

11-0962-4784

-90년 2기 전여대협 건준위 의장 시절의 정세, 조직현황, 활동들...

-이후 서여대협 간부로서의 활동에 대해

-90년 이전 대학 시절 활동들

-서울대 총여학생회 상황

그리고

-1기 전여대협 건준위 의장이 누구인지 생각나시는지

-그 때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있으신지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연락이 닿는 사람들 있는지...

[illegible] 계좌번호 : 신한은행 333-12-490698.

2500 가능할거.

010-7473-5020

1층...

7시쯤..